

실험설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노혜련(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유서구(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1. 서론

1990년대 중반이후 학교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위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1995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어 왔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사후 대책보다는 잠재적인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하는 예방적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개발·보급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대처기술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폭력예방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자 구체적인 도구가 되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1996년도에 개발된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보급에 대한 욕구가 점차 상승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성적인 검토와 함께 보다 많은 대상층으로의 확대를 위해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즉 프로그램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 주로 어떤 성과영역에서 그러한 효과가 관찰되는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실증적이고도 체계적인 평가연구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사전·사후 변화내

용(폭력과 관련된 인식과 태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비교집단)을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에 걸쳐 설문조사하고 이를 비교하는 실험설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목표(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학교폭력대처능력)에 있어 개입으로 인한 유의한 사후변화가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요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평균차 검정,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점수 차이를 통제된 후 관심변인의 사후차이를 검증하는 공분산분석(ANCOVA), 프로그램 실시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관심변인의 차이를 설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3. 연구의 주요결과

1) 연구대상자

총 22개 학교의 63개 학급의 2,197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응답했고, 이중 실험집단 학생이 51.7%(1,136명), 비교집단 학생이 48.3%(1,061명)이었다. 이를 다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나누어 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초등학생이 19.6%(223명), 중학생이 80.4%(913명)이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초등학생이 32%(336명), 중학생이 68%(714명)을 차지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본 연구의 참여대상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한정하였다.

2) 사전·사후의 변화

(1) 학교폭력의 인식과 태도의 사전·사후 변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래 폭력에 대한 허용정도, 피해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내용을 사전·사후에 비교한 것으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덜 허용적인 것(폭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 것으로)을 의미한다. 외부전문가 활용형의 실험집단과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의 비교집단, 순수비교집단에서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더 부정적인 방향(폭력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

였고, 학교사회복지/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의 실험집단에서는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 1>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사전·사후 변화

구분	집단유형	Valid N	사전	사후	평균차이	t
외부전문가 활용형	실험	359	3.03	2.92	.11	4.89***
	비교	108	2.98	2.98	.00	.03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	실험	660	3.10	3.13	-.03	-1.79
	비교	535	3.06	3.00	.07	4.72***
순수 비교집단	비교	161	3.17	3.03	.14	4.55***

* p<0.05, ** p<0.01, *** p<0.001

(2) 학교폭력 대처능력의 사전·사후 변화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을 가지고 학교폭력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4점 척도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2개의 실험집단 모두 사후에 평균이 0.10점~0.1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에서도 실험집단보다는 작지만 유의한 평균변화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에서는 비교집단이 교내의 같은 학년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학급단위의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웃학급이나 교내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 2> 학교폭력대처능력의 사전·사후 변화

구분	집단유형	Valid N	사전	사후	평균차이	t
외부전문가 활용형	실험	366	3.07	3.17	-.09	-2.893**
	비교	107	3.18	3.17	.02	.322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	실험	621	3.08	3.19	-.11	-4.940***
	비교	559	3.10	3.16	-.07	-3.304**
순수 비교집단	비교	169	3.08	3.02	.06	1.604

* p<0.05, ** p<0.01, *** p<0.001

3) 공변량분석

다음은 연구 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분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학교 폭력 대처능력의 사후 점수를 프로그램 개입 전에 나타난 3 집단(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순수비교집단)의 사전점수 차이를 통제한 후 비교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실시효과를 사후점수의 집단 간 차이로 설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 학교폭력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장기(16차시) 프로그램을 실시한 외부전문가 활용형의 중학교에서는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후점수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비교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다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평균 변화는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외부전문가 활용형 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순수비교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즉 아무런 프로그램이나 개입도 실시하지 않은 순수비교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사후검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비교집단보다 약 .17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의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실시 이후 조사된 실험집단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점수가 비교집단과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 < .01$). 순수비교집단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점수가 약 .14점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 준다.

(2) 학교폭력 대처능력의 변화

외부전문가 활용형의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처능력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집단 학생들의 사후점수를 순수비교집단의 사후점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대처능력의 향상)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순수비교집단을 기준

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에 대처능력의 점수가 약 .14점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전문가 활용형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의 중학교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조사된 실험집단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처능력은 사전점수를 통제된 이후에도 순수비교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순수비교집단을 기준으로 실험집단의 대처능력의 점수가 약 .14점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의 초등학교에서 실험집단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처능력은 사전점수를 통제된 이후에도 순수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순수비교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대처능력의 점수는 약 .20점 정도 향상되었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분노조절 능력, 문제상황에서의 대응능력 등의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학교폭력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학교폭력요인 등의 영향력을 우선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나중에 투입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물론이고 학교폭력 대처능력의 향상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에도 예방프로그램의 참여여부가 추가적으로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폭력에 대해 덜 허용적인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증진되는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제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일련의 계량적 분석결과들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긍정적인 변화(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와 인식, 학교폭력 대처능력)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전반적으로 중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보다 다양하고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과 확대보급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학생 대상으로 마련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용어와 내용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예방교육의 효과가 더욱 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초등학생 실험집단에서 확인된 연구의 주요결과들은 당초 16회기로 계획된 장기 프로그램이 단기 프로그램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으로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모두 학교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주형 학교에서 외부전문가 활용형(16회기 프로그램)의 학교에서보다 상당히 짧은 단기의 프로그램(4-6회기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이다. 비록 16회기 프로그램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을 4-6회기로 압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작업이긴 하나, 향후 프로그램의 다양한 적용을 위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해서 고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기 구성안(예로, 4회기에서부터 6회기, 10회기, 12회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